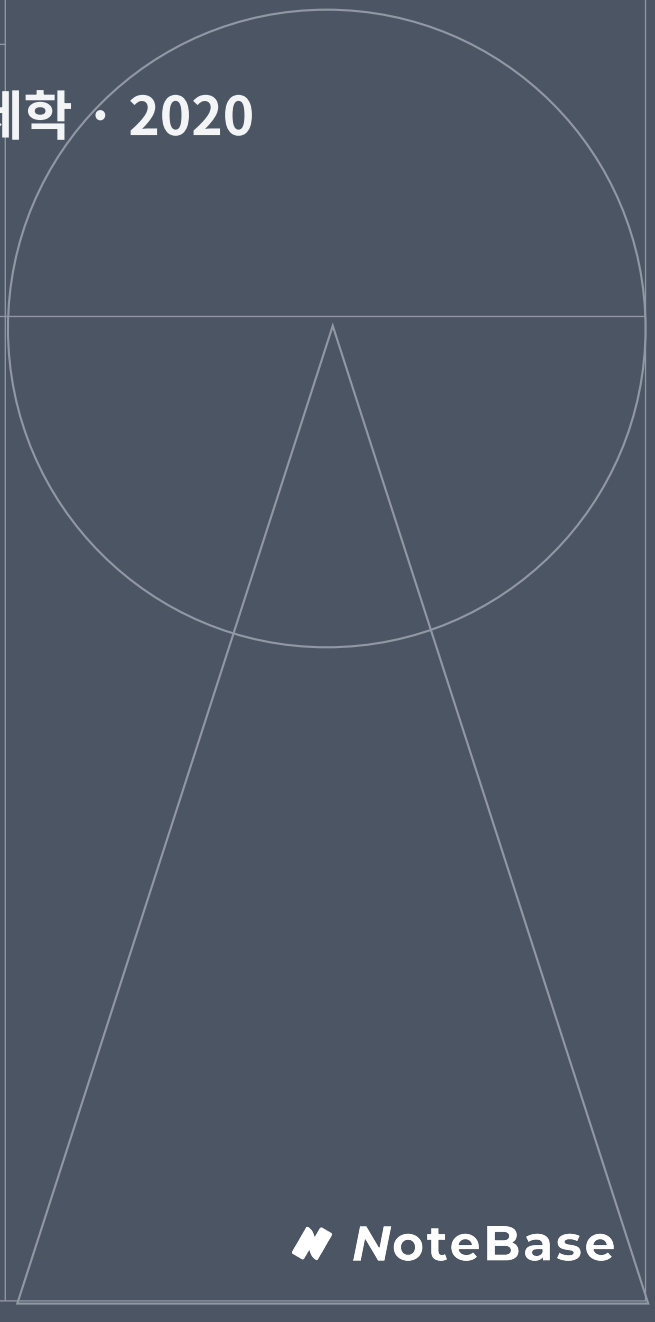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0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0

문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화폐공급이 증가하여도 이자율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① 구축효과

② 정책시차

③ 유동성 함정

④ 승수효과의 하락

⑤ 화폐의 장기 중립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클 때 화폐공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의 명칭을 묻는다.

핵심 개념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무한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이다.
이때 사람들은 늘어난 화폐를 모두 보유하려 하므로 화폐공급이 증가해도 이자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낳아 민간투자를 줄이는 현상이다.
화폐의 장기 중립성은 장기에는 화폐량 변화가 실질변수보다 물가 등 명목변수에 주로 영향을 준다는 성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구축효과'이며, 올바르게는 화폐공급 증가에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② X. 정책시차는 정책의 인지·결정·집행 또는 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정책시차'이며, 올바르게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큰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③ O.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크면 증가한 화폐공급이 화폐보유 수요로 흡수되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④ X. 승수효과의 하락은 소비성향 등의 변화로 지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확대 효과가 작아지는 것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승수효과의 하락'이며, 올바르게는 이자율이 더 낮아지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⑤ X. 화폐의 장기 중립성은 장기적으로 화폐량 변화가 실질산출량 같은 실질변수에 지속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틀린 표현은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며, 올바르게는 단기적으로 화폐공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구축효과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고, 이 문항은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현상이다. ⑤의 장기 중립성은 장기 실질효과의 문제이므로, 매우 낮은 이자율에서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과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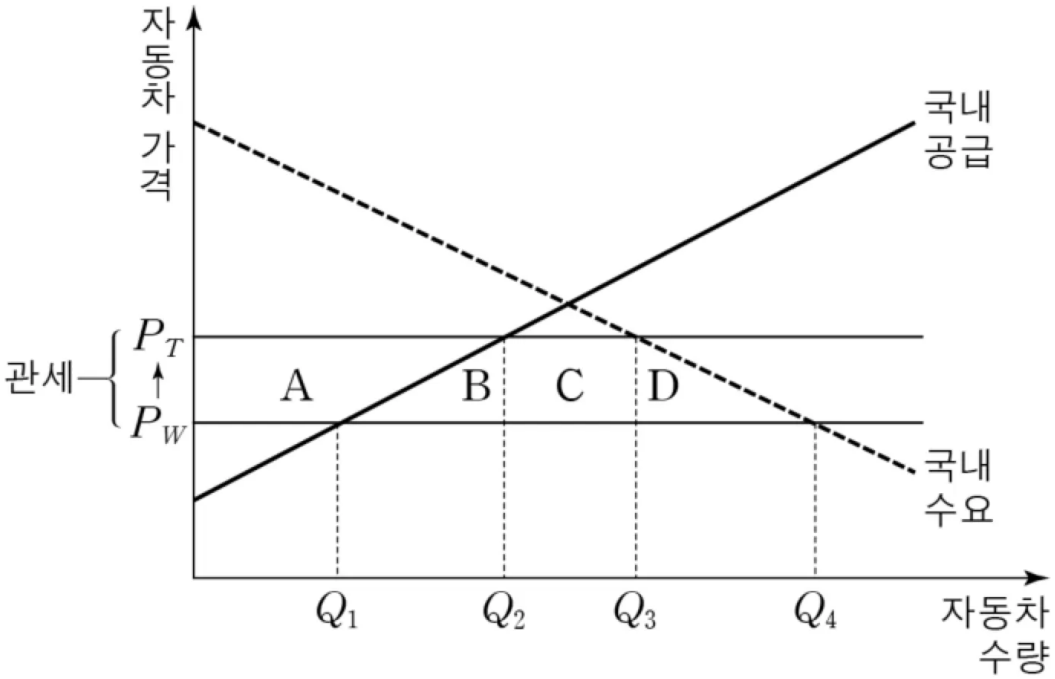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무한대', '화폐공급 증가에도 이자율 불변', '통화정책 무력화'가 함께 나오면 유동성 함정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가 나오면 구축효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수요가 수평이면 유동성 함정,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밀리면 구축효과이다.

NoteBase

문 2. 그림과 같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P_W)에서 관세를 더한 가격(P_T)으로 변할 경우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D는 각 영역의 면적이다.)



① 관세 부과로 총잉여는 감소한다.

② 관세 부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③ 관세 부과로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④ 관세 부과로 정부수입은 B+C+D만큼 증가한다.

⑤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은 $Q_1 \sim Q_2$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입품 관세로 국내가격이 P_W에서 P_T로 상승할 때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정부수입 및 후생변화를 도표의 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관세 부과 뒤 국내 공급량은 Q_1에서 Q_2로, 국내 수요량은 Q_4에서 Q_3로 변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가격선이 P_W에서 P_T로 상승한 것을 확인한다.
2. 공급곡선에서는 $Q_1 \rightarrow Q_2$의 생산 증가, 수요곡선에서는 $Q_4 \rightarrow Q_3$의 소비 감소를 읽는다.
3. 관세수입은 관세율 $P_T - P_W$에 관세 부과 뒤 수입량 $Q_3 - Q_2$를 곱한 면적인 C로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관세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정부수입은 관세 부과 뒤의 수입량 $Q_3 - Q_2$에 관세를 곱한 C이다.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 따른 순후생손실은 B와 D이므로 총잉여는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세는 생산·소비를 비효율적으로 변화시켜 B와 D만큼의 순후생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총잉여는 감소한다.
② O. 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Q_4에서 Q_3로 줄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③ O.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의 판매가격과 공급량이 함께 늘며,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도표의 A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B+C+D'이다. 정부수입은 관세율과 관세 후 수입량 $Q_3 - Q_2$의 곱이므로 C만큼 증가한다. B와 D는 순후생손실 영역이다.
⑤ O. 공급곡선에서 P_W일 때 공급량은 Q_1, P_T일 때는 Q_2이므로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은 Q_1에서 Q_2까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정부수입을 소비자잉여 감소분 전체와 혼동하기 쉽다.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은 A,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은 C이며, B와 D는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는 순후생손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 문제에서는 먼저 관세 후 수입량을 국내수요량에서 국내공급량을 뺀 값으로 구한다. 그 수입량에 가격 상승폭을 곱한 직사각형만 정부수입으로 판단하고, 양 끝의 삼각형은 순후생손실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관세수입 = 관세 × 관세 후 수입량 = C, 순후생손실 = B+D이다.

NoteBase

문 3. 정부의 가격하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낭비

② 비효율적으로 높은 거래량

③ 판매자들 간의 비효율적인 판매 배분

④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 제공

⑤ 최저임금제도 실시로 미숙련 노동의 초과공급 발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제가 초래하는 거래량 감소와 비가격경쟁의 비효율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하한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규제이다.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면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초과공급이 생기며, 실제 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감소한다.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출 수 없으므로 품질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판매자 사이에 비효율적으로 판매가 배분되는 비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격하한제로 초과공급이 생기면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는 물량이 발생하거나, 수요가 더 큰 용도로 자원이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높은 거래량'이다.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제에서는 가격이 올라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실제 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낮아진다. 올바르게는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이다.

③ O. 가격을 낮춰 경쟁할 수 없으면 판매자 사이에 고객을 배분하는 방식이 임의적이거나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판매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④ O. 가격하한 아래에서는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판매자들이 품질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비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을 넘는 품질 제공은 자원배분상 비효율이 될 수 있다.

⑤ O. 최저임금제가 균형임금보다 높게 구속적으로 적용되면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보다 많아져 미숙련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가격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거래량 증가로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가격하한제에서는 수요량이 줄어드므로 거래량은 늘지 않는다. ④의 과도한 품질 제공도 가격경쟁이 막힌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가격경쟁의 비용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은지 먼저 본다.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이면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공급량 증가 → 초과공급 → 실제 거래량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하한제는 초과공급과 거래량 감소를 낳고, 가격 대신 품질·판매배분 경쟁의 비효율을 낳는다.

NoteBase

문 4. 기펜재(Giffen goods)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ㄴ.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진다.
ㄷ.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진다.
ㄹ. 열등재 중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펜재의 수요곡선, 보상수요곡선, 소득탄력성 및 소득효과·대체효과의 크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펜재는 열등재 가운데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양의 소득효과가 음의 대체효과보다 커서 일반적인 수요법칙과 반대로 움직인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다.
보상수요는 실질소득을 보상하여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한 수요이며,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ㄱ O: 기펜재는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② ㄴ X: 틀린 표현은 '우상향'이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 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감소하여 우하향한다.
③ ㄷ O: 기펜재는 열등재의 한 종류이다. 열등재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다.
④ ㄹ X: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이다. 기펜재에서는 가격 상승 시 양의 소득효과가 음의 대체효과보다 커서 총수요량이 증가한다.
⑤ ㄱ·ㄷ O, ㄴ·ㄹ X: 옳은 설명은 ㄱ과 ㄷ뿐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펜재는 열등재라는 점 때문에 ㄷ은 맞지만,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는 아니다. 또한 기펜재의 가격 상승 후 수요 증가를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혼동하기 쉽다. 실제 원인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상승 뒤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먼저 기펜재를 떠올린다. 이어서 '열등재·소득탄력성 음수', '보상수요는 우하향',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큼'을 차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펜재 = 열등재 +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NoteBase

문 5.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평균비용 최저점이 1만 원,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이 4천 원,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인 경우 단기에 A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가격(원)은?

① 0
② 4천
③ 6천
④ 1만
⑤ 1만 4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조업중단점과 장기 손익분기점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조업중단점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아지는 가격이다. 이 가격보다 낮으면 가변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므로 생산을 중단한다. 평균비용의 최저점은 장기 손익분기점으로, 고정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가격이다.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단기 생산 여부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0원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보다 낮아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가격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조업중단점 자체는 아니다. 조업중단점의 경계가격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인 4천원이다.
② O: 단기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이므로 4천원이다. 이 가격에서는 가변비용을 겨우 회수하며, 그보다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한다.
③ X: 6천원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4천원보다 높다. 틀린 표현은 조업중단가격이라는 판단이며, 이 가격에서는 가변비용을 회수하므로 단기적으로 생산한다.
④ X: 1만원은 평균비용 최저점이다. 틀린 표현은 단기 조업중단점이라는 판단이며, 이는 고정비용까지 회수하는 장기 손익분기점이다.
⑤ X: 1만 4천원은 평균비용 최저점 1만원보다 높다. 틀린 표현은 생산중단가격이라는 판단이며, 이 가격에서는 이윤이 발생하므로 생산한다.

오답 포인트

평균비용 최저점 1만원을 조업중단점으로 고르는 함정이 핵심이다.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인 단기에는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을 기준으로 생산 여부를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 문제에서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먼저 가격과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을 비교한다. 가격이 그 최저점보다 낮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같거나 높으면 생산한다. 평균비용 최저점은 장기 손익분기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 조업중단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장기 손익분기점은 평균비용 최저점이다.

NoteBase

문 6. 표는 컴퓨터 시장의 가격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다. 컴퓨터 시장의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각각 얼마인가?

(단위 : 만 원, 개)

컴퓨터 가격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컴퓨터 수요량	0	1	2	3	4	5	6	7	8
컴퓨터 공급량	8	7	6	5	4	3	2	1	0

① 소비자 잉여(만 원): 0, 생산자 잉여(만 원): 0

② 소비자 잉여(만 원): 60, 생산자 잉여(만 원): 60

③ 소비자 잉여(만 원): 60, 생산자 잉여(만 원): 100

④ 소비자 잉여(만 원): 100, 생산자 잉여(만 원): 60

⑤ 소비자 잉여(만 원): 100, 생산자 잉여(만 원):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을 찾고, 그 가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이산적 단위별 차액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가격 110만 원에서 수요량 4개와 공급량 4개가 일치한다.
구해야 할 값: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표의 수요량·공급량은 개별 단위별로 거래 가능한 수량을 나타내므로 잉여는 각 단위의 지불의사 또는 공급가격과 균형가격의 차이를 더해 구한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 잉여 = 각 거래 단위의 지불의사 - 균형가격의 합계이다.
생산자 잉여 = 균형가격 - 각 거래 단위의 공급가격의 합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표는 가격이 10만 원씩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1개씩 변하는 이산적 자료이므로, 거래되는 4개 단위 각각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합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가격을 찾는다. 가격 110만 원에서 수요량 4개, 공급량 4개이므로 균형가격은 110만 원, 균형거래량은 4개이다.
2. 소비자 잉여를 계산한다. 거래되는 4개에 대한 지불의사는 140만 원, 130만 원, 120만 원, 110만 원이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140-110)+(130-110)+(120-110)+(110-110)=60만 원이다.
3. 생산자 잉여를 계산한다. 거래되는 4개에 대한 공급가격은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이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110-80)+(110-90)+(110-100)+(110-110)=60만 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0이 아니다. 균형가격 110만 원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소비자와 낮은 공급가격을 가진 생산자가 있으므로 잉여가 발생한다. 틀린 표현 '0, 0'은 올바르게는 '60, 60'이다.

② O
- 균형가격은 110만 원이고 거래량은 4개이다. 소비자 잉여는 (140-110)+(130-110)+(120-110)+(110-110)=60만 원, 생산자 잉여는 (110-80)+(110-90)+(110-100)+(110-110)=60만 원이다.

③ X
- 소비자 잉여 60만 원은 맞지만 생산자 잉여 100만 원이 틀리다. 생산자 잉여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의 공급가격과 균형가격 110만 원의 차액 합계이므로 60만 원이다. 틀린 표현 '생산자 잉여 100'은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 60'이다.

④ X
- 생산자 잉여 60만 원은 맞지만 소비자 잉여 100만 원이 틀리다. 소비자 잉여는 140만 원, 130만 원, 120만 원, 110만 원의 지불의사와 균형가격 110만 원의 차액 합계이므로 60만 원이다. 틀린 표현 '소비자 잉여 100'은 올바르게는 '소비자 잉여 60'이다.

⑤ X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모두 100만 원으로 본 것이 틀리다. 균형에서 실제 거래되는 4개 단위의 차액만 더하면 두 잉여 모두 60만 원이다. 틀린 표현 '100, 100'은 올바르게는 '60, 60'이다.

계산 결과 소비자 잉여 60만 원, 생산자 잉여 60만 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표를 연속적인 직선 수요·공급곡선처럼 보고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거나, 거래되지 않는 단위까지 잉여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표에 제시된 개별 단위의 차액 합계를 묻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량 4개까지만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공급 표가 나오면 먼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가격을 찾아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확정한다. 그다음 소비자 잉여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지불의사만, 생산자 잉여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공급가격만 거래량 범위 안에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가격은 수요량=공급량인 가격이고, 소비자 잉여는 지불의사-가격, 생산자 잉여는 가격-공급가격의 합계이다.

NoteBase

문 7. X재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이 서로 다른 시장 A, B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장 A, B의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 기업의 X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3원에 고정되어 있다면, 시장 A, B에서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단, 시장 간 X재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Q_A = -10P_A + 80, \quad Q_B = -4P_B + 20$

① 시장 A에서의 가격(원): 4.5, 시장 B에서의 가격(원): 2.5

② 시장 A에서의 가격(원): 5.5, 시장 B에서의 가격(원): 2

③ 시장 A에서의 가격(원): 5.5, 시장 B에서의 가격(원): 4

④ 시장 A에서의 가격(원): 7.5, 시장 B에서의 가격(원): 2

⑤ 시장 A에서의 가격(원): 7.5, 시장 B에서의 가격(원): 4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에서 각 시장별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어 이윤극대화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시장 A와 시장 B를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수요는 시장 A에서 $Q_A = -10P_A + 80$, 시장 B에서 $Q_B = -4P_B + 20$이다. 한계비용은 두 시장 모두 3원이다. 구할 값은 각 시장의 이윤극대화 가격이다.

사용할 공식

가격차별 독점기업은 각 시장에서 $MR_i = MC$가 되도록 생산량을 정한다. 역수요가 $P = a - bQ$이면 총수입은 $TR = aQ - bQ^2$이고,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다.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싼 시장에서 산 재화를 비싼 시장에 되팔 수 없으므로 시장별로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산 과정

시장 A의 역수요는 $P_A = 8 - 0.1Q_A$이므로 $MR_A = 8 - 0.2Q_A$이다. $8 - 0.2Q_A = 3$에서 $Q_A = 25$이고, $P_A = 8 - 0.1(25) = 5.5$원이다.
시장 B의 역수요는 $P_B = 5 - 0.25Q_B$이므로 $MR_B = 5 - 0.5Q_B$이다. $5 - 0.5Q_B = 3$에서 $Q_B = 4$이고, $P_B = 5 - 0.25(4) = 4$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시장 A의 4.5원과 시장 B의 2.5원은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가격 → 올바르게는 시장 A 5.5원, 시장 B 4원이다.
② X. 시장 A의 5.5원은 맞지만 시장 B의 2원은 틀리다. 틀린 표현인 시장 B 2원 → 올바르게는 4원이다.
③ O. 시장 A는 5.5원, 시장 B는 4원이므로 두 가격이 모두 이윤극대화 가격과 일치한다.
④ X. 시장 A의 7.5원과 시장 B의 2원은 모두 틀리다. 틀린 가격 → 올바르게는 시장 A 5.5원, 시장 B 4원이다.
⑤ X. 시장 B의 4원은 맞지만 시장 A의 7.5원은 틀리다. 틀린 표현인 시장 A 7.5원 → 올바르게는 5.5원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곡선에서 바로 가격을 읽어 한계비용 3원과 같게 두면 안 된다.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조건은 $P = MC$가 아니라 $MR = MC$이다. 또한 수요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시장 A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 탄력적이어서 시장 B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별 가격차별 문제에서는 각 수요를 역수요식으로 바꾸고, 각 시장의 MR을 구한 뒤 $MR = MC$로 수량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그 수량을 해당 시장의 수요식에 대입해 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제3급 가격차별: 시장별 $MR = MC$, 그리고 수요가 덜 탄력적인 시장의 가격이 더 높다.

NoteBase

문 8. 생산가능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재화의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다.

② 생산가능곡선을 제외한 내부 영역은 실현 가능하나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③ 생산가능곡선을 제외한 외부 영역은 실현 불가능한 생산 조합이다.

④ 생산가능곡선상의 생산 조합은 효율적인 생산 조합을 의미한다.

⑤ 생산가능곡선상 생산 조합에서의 생산은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PPF)에서 곡선 위·안쪽·바깥쪽 생산조합의 의미와 생산의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 아래에서 두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곡선 위는 생산요소가 완전히 활용된 생산효율적 조합이고, 곡선 안쪽은 생산요소가 남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실현 가능한 조합이며, 곡선 바깥쪽은 현재 조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조합이다.
생산의 효율성은 어느 재화의 생산을 늘리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태이고, 배분의 효율성은 생산효율성에 더하여 소비자 선호에 맞는 생산조합이 선택된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 재화의 생산량을 정하면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대응하는 다른 재화의 최대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옳다.
② O. 곡선 안쪽은 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여지가 있는 실현 가능한 영역이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③ O. 곡선 바깥쪽은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으므로 실현 불가능한 생산조합이다.
④ O. 생산가능곡선 위에서는 한 재화를 더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하므로 생산의 효율성이 성립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효율적인 배분'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조합은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소비자 선호까지 반영한 효율적인 배분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가능곡선상 생산 조합에서의 생산은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생산의 효율성과 배분의 효율성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곡선 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재화 조합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까지 알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곡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곡선 위는 생산효율적, 곡선 안쪽은 실현 가능하지만 비효율적, 곡선 바깥쪽은 실현 불가능으로 판단한다. 이후 '배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비자 선호까지 고려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PPF 위는 생산효율, 안쪽은 유휴자원, 바깥쪽은 현재 생산불가이다. 배분효율은 PPF 위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 9. 노동 시장의 노동수요곡선(L_D)과 노동공급곡선(L_S)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 시장에서의 균형임금률과 균형고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L_D = -25w + 300, \quad L_S = 25w$

① 균형임금률: 2, 균형고용량: 20

② 균형임금률: 2, 균형고용량: 50

③ 균형임금률: 4, 균형고용량: 100

④ 균형임금률: 6, 균형고용량: 150

⑤ 균형임금률: 6, 균형고용량: 2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조건을 이용하여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노동수요곡선은 $L_D = -25w + 300$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_S = 25w$이다. 균형에서는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이 같으므로 $L_D = L_S$가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은 $L_D = L_S$이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량과 가계가 공급하려는 노동량이 일치할 때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결정되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균형조건에 두 식을 대입하면 $-25w + 300 = 25w$이다.
2. 이를 정리하면 $300 = 50w$이므로 균형임금은 $w = 6$이다.
3. $w = 6$을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하면 $L_S = 25 \times 6 = 150$이므로 균형고용량은 1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임금 2를 대입하면 노동공급량은 $25 \times 2 = 50$이고 노동수요량은 $-25 \times 2 + 300 = 250$이므로 고용량 20도, 균형도 아니다. 틀린 표현인 '균형임금률 2, 균형고용량 20' → 올바르게는 '균형임금률 6, 균형고용량 150'이다.
② X: 임금 2에서 노동공급량은 50이지만 노동수요량은 250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균형임금률 2' → 올바르게는 '균형임금률 6'이다.
③ X: 임금 4에서는 노동수요량이 $-25 \times 4 + 300 = 200$, 노동공급량이 $25 \times 4 = 100$이므로 100은 공급량일 뿐 균형고용량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균형임금률 4, 균형고용량 100' → 올바르게는 '균형임금률 6, 균형고용량 150'이다.
④ O: 임금 6에서 노동수요량은 $-25 \times 6 + 300 = 150$, 노동공급량은 $25 \times 6 = 150$으로 같아진다. 따라서 균형임금률은 6, 균형고용량은 150이다.
⑤ X: 임금 6은 맞지만, 그때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은 모두 150이다. 틀린 표현인 '균형고용량 225' → 올바르게는 '균형고용량 150'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임금 4에서의 노동공급량 100만 계산해 균형고용량으로 오인하게 한다. ⑤는 균형임금 6은 맞지만 그 임금을 어느 한 곡선에 대입해도 150이 나온다는 점을 놓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곡선이 식으로 주어지면 먼저 수요량=공급량을 놓고 임금을 구한 뒤, 그 임금을 수요식 또는 공급식에 대입하여 균형고용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두 식에서 같은 고용량이 나오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균형은 '수요량 = 공급량'이며, 이 문제에서는 $300 = 50w$에서 $w = 6$, 고용량은 150이다.

NoteBase

문 10.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고,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거래되는 문제가 있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과다소비로 인한 자원고갈현상을 의미한다.

③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세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산출량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와 같다.

④ 공공재는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수요를 계산할 때 개별적 수요를 수평으로 합계한다.

⑤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코우즈(Coase)의 정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성,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의 수요곡선, 코우즈 정리의 시장실패 교정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긍정적 소비 외부성은 소비자가 얻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 전체의 편익이 큰 경우이며, 시장에서는 소비량이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어진다.
부정적 생산 외부성은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피구세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를 반영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가지며, 같은 수량에 대한 개인별 지불의사를 세로로 더해 사회 전체의 수요를 구한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자원으로, 과다 이용되기 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긍정적 소비 외부성이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시장균형 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보다 작아 과소소비가 발생한다.

② O.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 경합성 때문에 과다 이용되어 고갈되는 현상이다.

③ O. 부정적 생산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산출량에서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 즉 한계외부비용에 맞춰 부과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개별적 수요를 수평으로 합계한다'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같은 수량에서 개인별 한계편익을 세로로 합산한다. 수평 합산은 사적재의 시장수요를 구하는 방식이다.

⑤ O.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수요 합산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가격축의 지불의사를 더하는 세로 합산이고, 사적재는 같은 가격에서 수량을 더하는 가로 합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곡선 합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소비 수량을 개인별로 따로 정하는 사적재인지, 모두가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인지 구분한다. 사적재는 수평 합산, 공공재는 수직 합산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적재는 수량을 가로로 더하고, 공공재는 지불의사를 세로로 더한다.

NoteBase

문 11. 갑의 월소득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여 귤 소비가 100개에서 120개로 늘었다. 이러한 경우 갑의 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① 0.25

② 0.5

③ 1

④ 2

⑤ 4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월소득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 증가하고, 콜 소비량은 100개에서 120개로 20% 증가한다.
구해야 할 값: 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다.
주의할 조건: 소득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사용할 공식

소득탄력성은 $(\%\Delta Q)/(\%\Delta Y)$이다.
이 문제는 소득 변화에 대한 콜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묻고 있으므로, 소비량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눈다.

계산 과정

1. 소득 변화율은 $(110 - 100)/100 \times 100 = 10\%$이다.
2. 콜 소비량 변화율은 $(120 - 100)/100 \times 100 = 20\%$이다.
3. 소득탄력성은 $20\%/10\% =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소득탄력성의 계산 결과는 0.25가 아니다. 틀린 표현 '0.25' → 올바르게는 '2'이다.
② X: 소비량 증가율 20%를 소득 증가율 10%로 나누면 0.5가 아니라 2가 된다. 틀린 표현 '0.5' → 올바르게는 '2'이다.
③ X: 소비량 증가율 20%와 소득 증가율 10%는 같지 않으므로 소득탄력성은 1이 아니다. 틀린 표현 '1' → 올바르게는 '2'이다.
④ O: 20%/10% = 2이므로 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2이다.
⑤ X: 소비량 증가율 20%를 소득 증가율 10%로 나눈 값은 4가 아니다. 틀린 표현 '4' → 올바르게는 '2'이다.
계산 결과가 2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소득탄력성에서 분자는 소비량 변화율, 분모는 소득 변화율이다. ②의 0.5처럼 분자와 분모를 뒤집거나, ③의 1처럼 두 변화율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를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과 소비량의 각각의 변화율을 먼저 구한 뒤, $\%\Delta Q$를 $\%\Delta Y$로 나누어 소득탄력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탄력성은 '소비량 변화율 ÷ 소득 변화율'이며, 이 문제에서는 20% ÷ 10% = 2이다.

NoteBase

문 12.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존재하는 생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에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 형태를 갖는 것은 산출량 증가에 따라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② 단기에는 최소비용 산출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다.

③ 단기에서 한계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총비용은 항상 증가한다.

④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상승할 때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한다고 한다.

⑤ 장기에는 고정비용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 평균비용·한계비용의 관계와 장기 평균총비용의 규모의 경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산출량이 늘면 계속 하락한다. 평균총비용은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이며,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평균총비용을 끌어내리고 높으면 끌어올린다.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 평균총비용의 상승은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산출량 증가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하락하고, 평균가변비용은 일정 산출량 이후 상승한다. 이 두 평균비용의 상반된 움직임 때문에 평균총비용은 처음에는 하락하다가 나중에는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띤다.

② O. 평균총비용이 최저인 점에서는 평균총비용의 기울기가 0이므로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이 일치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항상 증가한다'이다. 한계비용이 증가하고 있어도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평균총비용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을 때 평균총비용이 증가한다.

④ O. 장기 평균총비용이 산출량 증가와 함께 상승하면 생산규모 확대가 비용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이다.

⑤ O.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어 고정요소가 없다. 따라서 기업은 설비·공장규모 같은 고정비용 관련 선택도 변경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한계비용의 증가'와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은가'를 혼동하게 만든다. 평균총비용의 방향은 한계비용 자체의 증감이 아니라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의 크기 비교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비용의 방향을 물으면 먼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비교한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은 하락하고, 높으면 평균은 상승하며, 같으면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이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을 내리고, 높으면 평균을 올린다. 장기 평균총비용 상승은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이다.

NoteBase

문 13.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면 두 상품은 완전대체재이다.

② 무차별곡선상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어느 점에서나 다르다.

③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면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⑤ 두 상품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무차별곡선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두 상품은 완전보완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차별곡선의 모양과 한계대체율, 완전대체재·완전보완재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두 상품 묶음을 이은 곡선이다. 따라서 한 무차별곡선 위의 효용은 모두 같다.
완전대체재는 서로 일정한 비율로 대체되어 무차별곡선이 직선이고, 완전보완재는 함께 일정한 비율로 소비되어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에서는 한 상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상품을 추가로 얻기 위해 포기하려는 양이 줄어들므로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L자형’과 ‘완전대체재’의 연결이다. L자형 무차별곡선은 두 상품을 함께 써야 하는 완전보완재에서 나타난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② X - 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준다. ‘효용이 어느 점에서나 다르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같다’이다.
③ X - 한계효용체감은 각 상품을 더 소비할 때 그 상품의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는 성질일 뿐, 그것만으로 한계대체율체감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성립하면 … 성립한다’는 필연관계이며, 한계대체율체감은 무차별곡선의 원점에 대한 볼록성과 직접 연결된다.
④ O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곡선을 따라 한 상품을 늘릴수록 다른 상품을 대체할 의사가 줄어든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⑤ X - 한계대체율이 무차별곡선 어디에서나 일정하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된다. 이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라 완전대체재의 경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⑤는 완전대체재와 완전보완재의 곡선 모양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또한 ③처럼 한계효용체감과 한계대체율체감을 같은 성질로 보는 오류가 자주 출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차별곡선의 모양을 확인한다. 직선이면 한계대체율이 일정한 완전대체재, L자형이면 완전보완재,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대체율체감으로 판단한다. 곡선 위의 효용은 항상 같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직선·일정한 한계대체율은 완전대체재, L자형은 완전보완재, 원점에 대한 볼록성은 한계대체율체감이다.

NoteBase

문 14. 솔로우(Solow) 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3%일 때, 총자본량과 1인당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을 순서대로 옳게 제시한 것은?

① 0, 0
② 0, 3
③ 1.5, 1.5
④ 3, 0
⑤ 3, 3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총량변수와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이다.
구해야 할 값: 총자본량 K과 1인당 국민소득 Y/L의 연간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 K/L이 일정하며, 문제에서 기술진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사용할 공식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g_{K/L} = 0$, $g_{Y/L} = 0$이다. 따라서 총자본량은 인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여 $g_K = n$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균제상태는 1인당 자본이 변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구가 3% 늘어나는 만큼 총자본량도 3% 늘어나야 1인당 자본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계산 과정

1. 인구증가율은 $n = 3\%$이다.
2.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 K/L은 일정하므로 총자본량 K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과 같아 $g_K = 3\%$이다.
3. 1인당 자본이 일정하면 1인당 국민소득 Y/L도 일정하므로 $g_{Y/L} = 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0%, 0%는 총자본량도 일정하다고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총자본량 증가율이 0%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총자본량은 인구와 함께 3% 증가한다.
② X: 0%, 3%는 총자본량과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을 뒤바꾼 값이다. 올바르게는 총자본량은 3%, 1인당 국민소득은 0%이다.
③ X: 1.5%, 1.5%는 균제상태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중간값이다. 틀린 표현은 두 변수의 증가율을 동일하게 1.5%로 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총량과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을 구분한다.
④ O: 총자본량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3%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일정하므로 0% 증가한다.
⑤ X: 3%, 3%는 총자본량 성장률만 맞다. 틀린 표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 증가한다는 부분이며, 기술진보가 없으면 균제상태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0%이다.
계산 결과 3%, 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균제상태를 모든 변수의 증가율이 0%인 상태로 오해하기 쉽다. 균제상태에서 일정한 것은 1인당 자본과 1인당 국민소득이며, 총자본량 같은 총량변수는 인구증가율만큼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에서는 먼저 1인당 변수와 총량변수를 나눈다. 균제상태이면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은 0%이고, 총량변수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같다.

암기 포인트

기술진보 없음: 균제상태에서 1인당은 0%, 총량은 인구증가율이다.

NoteBase

문 15.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지출을 위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금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①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② 균형이자율: 불분명, 균형거래량: 증가

③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④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불분명

⑤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불분명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세액공제와 재정적자 확대가 자금시장의 수요·공급을 각각 어떻게 이동시키는지에 따른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금수요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수요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의 세후 비용을 낮춰 자금수요를 증가시킨다. 자금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적자 확대는 정부저축을 감소시켜 자금공급을 감소시킨다. 자금수요 증가와 자금공급 감소는 모두 균형이자율을 상승시키지만, 거래량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균형이자율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균형거래량의 '감소'는 확정할 수 없다. 투자세액공제는 자금수요를 늘려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재정적자 확대는 자금공급을 줄여 거래량을 감소시키므로 순효과는 불분명하다. 틀린 표현 '감소' → 올바르게는 '불분명'이다.

② X: 균형거래량의 증가는 확정할 수 없고, 균형이자율도 불분명이 아니다. 두 정책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 '불분명' → 올바르게는 '상승'이다.

③ X: 균형이자율의 상승은 맞다. 다만 균형거래량은 투자세액공제의 증가 효과와 재정적자 확대의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증가'로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증가' → 올바르게는 '불분명'이다.

④ O: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자금공급 감소는 모두 균형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거래량에는 전자는 증가, 후자는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⑤ X: 균형이자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자금수요 증가와 자금공급 감소는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거래량은 불분명하다는 부분만 맞다. 틀린 표현 '하락' → 올바르게는 '상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처럼 두 정책이 모두 투자촉진 정책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거래량까지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재정적자 확대는 정부저축을 줄여 자금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거래량에는 감소 압력을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정책이 자금수요곡선 또는 자금공급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분리한다. 이자율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변화는 확정하고, 거래량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변화는 불분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세액공제는 자금수요 증가, 재정적자는 자금공급 감소이다. 둘 다 이자율은 상승, 거래량은 반대 방향 효과로 불분명하다.

NoteBase

문 16. 어느 국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3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700만 명이며, 실업자 수는 70만 명일 때 고용률(%)은?

① 60

② 63

③ 70

④ 77

⑤ 9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고용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비경제활동인구는 3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7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이므로 1,000만 명이다. 실업자 70만 명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630만 명이다.

사용할 공식

고용률은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 100이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전체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비경제활동인구도 분모에 포함된다.

계산 과정

1. 취업자 수는 700만 명-70만 명=630만 명이다.
2. 생산가능인구는 700만 명+300만 명=1,000만 명이다.
3. 고용률은 $\frac{630}{1,000} \times 100 = 6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고용률은 60%가 아니다. 주어진 수치로 계산한 값은 63%이므로, 틀린 표현 '60%'은 '63%'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취업자 630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누면 63%이다.
③ X: 70%는 고용률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700)/(1,000)×100=70\%는 경제활동참가율이므로, '고용률 70%'는 '경제활동참가율 7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77%는 주어진 고용률 계산값이 아니다. 취업자 수와 생산가능인구를 적용하면 63%이므로, 틀린 표현 '77%'은 '63%'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90%는 고용률이 아니다.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630)/(700)×100=90\%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므로, '고용률 90%'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 9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의 90%처럼 경제활동인구 700만 명을 분모로 쓰면 고용률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내부의 취업 비율을 구하게 된다. ③의 70%는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빼서 구한다. 그다음 고용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생산가능인구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은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17. 환율 및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②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이다.

③ 일반적으로 외환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④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자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외환을 매각하는 것은 자국통화의 고평가를 유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의 의미, 고정·변동환율제도, 외환의 수요곡선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자국통화 가치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율은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이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는 제도이고,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본이 유출되고 자국통화는 약세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을 나타낸다.

② O. 금본위제도는 금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 각국 통화의 가치를 연결하고, 브레튼우즈체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각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연계하였다. 둘 다 대표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③ O. 일반적으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를 사려는 비용이 커지므로 외환 수요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외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자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이다. 국내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의 상대수익률이 낮아져 자본 유출이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원/달러 환율처럼 외화 1단위당 자국통화 표시 방식에서는 환율이 상승한다.

⑤ O. 고정환율제도에서 자국통화가 고평가되면 이를 유지하려고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하고 자국통화를 사들인다. 이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외환시장 개입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환율 상승'과 '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같은 방향으로 혼동하게 만든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1단위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리 변화는 자본의 이동으로 판단한다. 국내 금리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국내 자산 수요가 줄어 자본이 유출되고 자국통화는 약세가 된다. 이어서 환율의 표시방식을 확인한다. 외화 1단위당 자국통화 표시에서는 자국통화 약세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암기 포인트

국내 금리 하락 → 자본 유출 → 자국통화 가치 하락 →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

NoteBase

문 18. 자료는 어떤 국가의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이 경제에서 투자지출과 순자본유출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정부의 이전지출은 없다.)

국내총생산(GDP) = 14조 원, 정부구매(G) = 3조 원
소비(C) = 10.5조 원, 수출(X) = 3조 원
조세(T) = 2.5조 원, 수입(IM) = 3.25조 원

① 투자지출(조 원): 0.25, 순자본유출(조 원): -0.5
② 투자지출(조 원): 0.5, 순자본유출(조 원): -0.25
③ 투자지출(조 원): 0.5, 순자본유출(조 원): 0.25
④ 투자지출(조 원): 0.75, 순자본유출(조 원): -0.25
⑤ 투자지출(조 원): 0.75, 순자본유출(조 원): 0.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투자지출을 구하고, 순자본유출이 순수출 및 국민저축에서 투자를 뺀 값과 같다는 관계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GDP는 14조 원, 소비는 10.5조 원, 정부구매는 3조 원, 수출은 3조 원, 수입은 3.25조 원이다. 조세는 2.5조 원이며 정부의 이전지출은 없으므로 정부저축은 조세에서 정부구매를 뺀 값이다. 구할 값은 투자지출과 순자본유출이다.

사용할 공식

국민소득 항등식은 $GDP = C + I + G + (X - IM)$이다. 순자본유출은 $NCO = NX = X - IM = S - I$이고, 국민저축은 $S = GDP - C - G$이다. 개방경제에서 순자본유출은 순수출과 같으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호를 그대로 반영한다.

계산 과정

1. 순수출은 $X - IM = 3 - 3.25 = -0.25$조 원이다.
2.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입하면 $14 = 10.5 + I + 3 - 0.25$이므로 투자지출은 $I = 0.75$조 원이다.
3. 국민저축은 $S = 14 - 10.5 - 3 = 0.5$조 원이고, 순자본유출은 $S - I = 0.5 - 0.75 = -0.25$조 원이다. 이는 순수출 -0.25조 원과도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투자지출이 0.25조 원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투자지출이 0.75조 원이고 순자본유출은 -0.25조 원이다. 0.25조 원은 순수출의 절댓값을 투자지출로 혼동한 값이다.
② X: 투자지출이 0.5조 원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투자지출이 0.75조 원이고 순자본유출은 -0.25조 원이다. 0.5조 원은 국민저축을 투자지출과 혼동한 값이다.
③ X: 투자지출이 0.5조 원이고 순자본유출이 0.25조 원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각각 0.75조 원과 -0.25조 원이다. 국민저축과 투자를 혼동하고 순수출의 부호를 바꾼 결과이다.
④ O: 투자지출은 0.75조 원, 순자본유출은 -0.25조 원이다. 국민소득 항등식과 $NCO = NX$를 모두 충족한다.
⑤ X: 순자본유출이 0.25조 원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0.25조 원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0.25조 원 많으므로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은 음수이다.

오답 포인트

수입 3.25조 원이 수출 3조 원보다 크므로 순수출은 -0.25조 원이다. ③과 ⑤처럼 순자본유출의 부호를 양수로 쓰거나, ②와 ③처럼 국민저축 0.5조 원을 투자지출로 바로 쓰는 오류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NX = X - IM$의 부호를 계산하고, $GDP = C + I + G + NX$에서 투자를 구한다. 이어 $NCO = NX = S - I$로 순자본유출을 교차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개방경제에서는 $NCO = NX = S - I$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크면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은 모두 음수이다.

NoteBase

문 19. 국제무역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이다.

② 자유무역하에서는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교역 후에 총잉여가 증가한다.

③ 특정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면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 없다.

④ 기술개발로 재화 생산량이 증가해서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은 악화될 수 있다.

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와 조세수입 증가의 합계보다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구별, 자유무역의 교역이득, 관세의 후생효과 및 교역조건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이고, 비교우위는 다른 재화에 비해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이다. 국제무역의 직접적인 근거는 절대우위의 유무가 아니라 재화별 상대생산성, 즉 기회비용의 차이이다.
자유무역은 교역 당사국 모두에 교역이득을 주며, 소국의 관세는 소비자잉여를 줄이고 그 감소분 중 생산자잉여 증가와 관세수입으로 이전되지 않은 부분이 순손실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재화별로 다르면 각 재화의 기회비용이 달라지고 비교우위가 생긴다.
② O. 자유무역으로 각국은 비교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이득을 얻으므로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의 총잉여가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면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 없다'이다. 한 국가가 모든 재화에서 절대우위를 가져도 재화별 기회비용이 다르면 비교우위가 나뉘므로 특화와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④ O. 기술개발로 한 재화의 생산이 늘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가 수출재인 경우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⑤ O.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는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다. 감소분 중 생산자잉여 증가와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생산 왜곡으로 생기는 순손실이므로, 소비자잉여 감소가 두 증가분의 합보다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같은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모든 재화의 절대생산성이 높아도 재화별 우위의 정도가 다르면 비교우위는 존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 가능 여부를 물으면 먼저 절대우위가 아니라 기회비용의 상대적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관세 선지는 소비자잉여 감소가 생산자잉여 증가와 관세수입 증가를 모두 포함하고도 더 큰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다. 관세의 남는 손실은 순손실이다.

NoteBase

문 20. 어떤 은행의 자본금이 200억 원이고 예금이 800억 원이다. 이 은행은 10 %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한다. 은행의 자산가치가 대출금 상환불능으로 12 % 하락하였을 때 상환불능 후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과 자본금의 크기로 옳은 것은?

① 레버리지 비율: 5 %, 자본금: 100억 원

② 레버리지 비율: 5 %, 자본금: 180억 원

③ 레버리지 비율: 11 %, 자본금: 80억 원

④ 레버리지 비율: 11 %, 자본금: 180억 원

⑤ 레버리지 비율: 15 %, 자본금: 170억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산가치 하락분이 자본금에 먼저 반영되는 은행의 레버리지 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초기 총자산은 자본금 200억 원과 예금 800억 원의 합계인 1,000억 원이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10%인 80억 원이고, 나머지 자산은 대출로 운용된다. 예금채무 800억 원은 자산가치 하락 뒤에도 그대로이다.

사용할 공식

자본금은 자산-부채이고,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자본금으로 계산한다. 자산이 줄어들어도 예금채무가 즉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 감소분은 자본금 감소로 흡수된다.

계산 과정

1. 자산가치 하락액은 1,000억 원×0.12=120억 원이다.
2. 하락 후 총자산은 1,000억 원-120억 원=880억 원이다.
3. 하락 후 자본금은 880억 원-800억 원=80억 원이다.
4. 레버리지 비율은 880억 원/80억 원=11이므로 선지의 11%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자본금이 100억 원이라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산가치 하락액은 120억 원이므로 자본금은 80억 원이다. 틀린 표현 '5%, 100억 원' → 올바르게는 '11%, 80억 원'이다.
② X. 자본금 180억 원은 자산가치 하락분 12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 '5%, 180억 원' → 올바르게는 '11%, 80억 원'이다.
③ O. 총자산은 880억 원, 자본금은 80억 원이며 레버리지 비율은 11이므로 제시된 '11%, 80억 원'이 맞다.
④ X. 레버리지 비율 11은 맞지만 자본금이 틀리다. 180억 원은 자산가치 하락액을 20억 원만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 '180억 원' → 올바르게는 '80억 원'이다.
⑤ X. 레버리지 비율 15와 자본금 170억 원은 모두 자산 12% 하락 후의 대차대조표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15%, 170억 원' → 올바르게는 '11%, 80억 원'이다.

오답 포인트

지급준비율 10%를 자산가치 하락률 12%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손실액은 총자산 1,000억 원의 12%인 120억 원이며, 예금채무가 아니라 자본금 200억 원에서 차감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 손실 문제에서는 먼저 총자산과 부채를 구한 뒤, 자산 손실을 반영하여 자본금=자산-부채를 다시 계산한다. 그 다음 총자산/자본금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 손실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이 흡수한다. 자본금이 작아질수록 레버리지는 커진다.

NoteBase

문 21. 금융시장 및 증권(주식, 채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은 정부만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역의 관계이다.

③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시장이다.

④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한다.

⑤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피한다면 안전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채권의 가격과 시장이자율의 관계, 그리고 발행시장·유통시장과 직접금융·간접금융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채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성격의 증권이다.
채권가격은 미래에 받을 원리금의 현재가치이므로 시장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발행시장은 새 증권을 발행자와 최초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자금수요자와 투자자가 증권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직접금융시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정부만'이다. 채권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② O — 채권의 약정 원리금이 일정할 때 시장이자율이 오르면 미래 원리금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채권가격과 시장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간접금융시장'이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증권을 통하여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대표적인 직접금융시장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발행시장'이다.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은 유통시장이다. 발행시장은 증권이 처음 발행될 때의 시장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안전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다'이다. 위험을 기피하는 투자자는 더 위험한 자산을 보유할 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안전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더 낮다.

오답 포인트

③은 증권시장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고, ④는 새 증권의 최초 거래인 발행시장과 투자자 사이의 재거래인 유통시장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⑤는 위험회피자가 위험자산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위험프리미엄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 문제에서는 먼저 시장이자율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한다. 이어서 증권의 최초 발행이면 발행시장, 이미 발행된 증권의 투자자 간 거래이면 유통시장으로 판단한다. 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직접금융,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을 중개하면 간접금융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금리↑ → 채권가격↓, 최초 거래 → 발행시장, 투자자 간 재거래 → 유통시장, 위험↑ → 요구수익률↑이다.

NoteBase

문 22. 표는 자동차와 비행기 1단위 생산에 필요한 A국과 B국의 국가별 노동량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A국은 (ㄱ)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B국은 (ㄴ)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국가별 노동량>

국가	자동차	비행기
A국(명)	1,000	1,200
B국(명)	800	600

① ㄱ: 비행기, ㄴ: 자동차

② ㄱ: 자동차, ㄴ: 비행기

③ ㄱ: 해당 없음, ㄴ: 해당 없음

④ ㄱ: 해당 없음, ㄴ: 비행기, 자동차

⑤ ㄱ: 비행기, 자동차, ㄴ: 해당 없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품 1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으로 각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비교우위와 특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자동차 1단위를 만들 때 포기하는 비행기 생산량을 계산한다.
2. 비행기 1단위를 만들 때 포기하는 자동차 생산량을 계산한다.
3. 같은 상품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를 찾아 특화 상품을 정한다.

핵심 근거

A국에서 자동차 1단위의 기회비용은 1000/1200 = 5/6단위의 비행기이고, B국에서는 800/600 = 4/3 단위의 비행기이다.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으므로 A국은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다.
A국에서 비행기 1단위의 기회비용은 1200/1000 = 6/5단위의 자동차이고, B국에서는 600/800 = 3/4 단위의 자동차이다. 비행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낮으므로 B국은 비행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국은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틀린 표현: ‘A국 비행기, B국 자동차’ → 올바르게는 ‘A국 자동차, B국 비행기’이다.
② O. A국은 자동차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5/6단위의 비행기로 B국의 4/3보다 낮다. B국은 비행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3/4단위의 자동차로 A국의 6/5보다 낮다. 따라서 A국은 자동차, B국은 비행기에 특화한다.
③ X. 두 나라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것이 아니다. A국은 자동차, B국은 비행기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다. 틀린 표현: ‘A국과 B국 모두 해당 없음’ → 올바르게는 ‘A국 자동차, B국 비행기’이다.
④ X. A국이 특화할 상품이 없고 B국이 두 상품 모두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비교우위가 서로 다른 나라에 나뉜다. 틀린 표현: ‘A국 해당 없음, B국 비행기·자동차’ → 올바르게는 ‘A국 자동차, B국 비행기’이다.
⑤ X. A국이 두 상품 모두에 특화하고 B국이 특화할 상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 A국은 자동차에서만, B국은 비행기에서만 비교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 ‘A국 비행기·자동차, B국 해당 없음’ → 올바르게는 ‘A국 자동차, B국 비행기’이다.

오답 포인트

노동량이 더 적은지만 보고 절대우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 A국은 두 상품 모두 B국보다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므로 절대우위는 없지만,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더 낮아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나라에서 한 상품의 노동량을 다른 상품의 노동량으로 나누어 기회비용을 구한다. 같은 상품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그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그 상품에 특화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절대 노동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낮은 상품으로 판단한다.

문 23. 총공급 곡선의 이동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 기술진보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② 임금상승으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③ 법인세 감소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④ 새로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⑤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선지가 총공급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구분하여, 홀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공급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공급하려는 실질산출량을 나타내며, 생산능력이 커지거나 단위당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우측(증가 방향)으로, 생산능력이 줄거나 단위당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좌측(감소 방향)으로 이동한다. 기술진보·생산요소 증가·세금 감면은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생산능력을 키워 우측 이동 요인이 되고, 임금 등 요소가격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좌측 이동 요인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우측 이동: 기술진보는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산출을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좌측 이동: 임금상승은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용을 높이므로 각 물가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산출량이 줄어들어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나머지 선지가 모두 우측 이동 요인인 것과 달리 이 선지만 이동 방향이 반대이므로 정답이다.
③ 우측 이동: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세후 수익성과 생산 유인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므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우측 이동: 새로운 유전의 발견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자원)를 늘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므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⑤ 우측 이동: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는 노동공급을 늘려 생산가능량을 확대하므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를 다른 선지처럼 총공급 증가 요인으로 오해하기 쉽다.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므로,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점과 무관하게 총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문제가 묻는 것은 이동 여부가 아니라 이동 '방향'이라는 점에도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생산능력을 키우거나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면 총공급 우측 이동으로, 생산능력을 줄이거나 단위당 생산비용을 높이면 총공급 좌측 이동으로 판단한다. 방향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이므로 다수와 반대인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기술진보·자원 발견·노동 증가·세금 감면은 총공급 우측 이동,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 상승은 총공급 좌측 이동이다.

NoteBase

문 24.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조건과 그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 비탄력적 수요, 상황: 수량효과와 가격효과가 동일하다.

② 조건: 비탄력적 수요, 상황: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③ 조건: 단위탄력적 수요, 상황: 수량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한다.

④ 조건: 탄력적 수요, 상황: 가격하락 시 생산자들의 판매수입은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

⑤ 조건: 탄력적 수요, 상황: 산업 전체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한다면 산업 내 생산자들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 변화 때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수량효과·가격효과의 크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탄력적 수요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수요이며, 가격 변동에 소비자가 둔감하게 반응한다. 단위탄력적 수요는 두 변화율의 크기가 같은 수요이다. 탄력적 수요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수요이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하락 때 비탄력적 수요는 가격효과가 수량효과보다 커 총수입이 감소하고, 단위탄력적 수요는 두 효과가 같아 총수입이 변하지 않으며, 탄력적 수요는 수량효과가 더 커 총수입이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수요량 변화가 작으므로 수량효과와 가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동일하다'이며, 올바르게는 가격효과가 수량효과보다 크다.
② X. 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민감하게'이며, 올바르게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③ X. 단위탄력적 수요에서는 수량효과와 가격효과의 크기가 같다. 틀린 표현은 '수량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두 효과가 동일하다.
④ O.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의 수량효과가 가격하락의 가격효과보다 크므로 생산자들의 판매수입, 즉 총수입이 증가한다.
⑤ X. 생산자들이 협력하여 산업 전체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나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의 효과가 더 커 산업 내 생산자들의 총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총수입은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총수입은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탄력성의 세 경우에 따른 두 효과의 크기를 서로 바꾼 선지이다. ⑤는 생산량 감축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점만 보고 총수입도 늘어난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총수입 변화는 가격 방향만이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과 총수입의 변화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가격하락 시 탄력적 수요이면 총수입은 증가하고, 비탄력적 수요이면 감소하며, 단위탄력적 수요이면 변하지 않는다. 가격상승 시에는 이 관계가 반대로 나타난다.

암기 포인트

가격하락: 탄력적이면 총수입 증가, 단위탄력적이면 불변, 비탄력적이면 총수입 감소이다.

NoteBase

문 25.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법정지급준비율 (ㄱ), 재할인율 (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ㄷ)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인하, ㄴ: 인상, ㄷ: 매각

② ㄱ: 인하, ㄴ: 인하, ㄷ: 매입

③ ㄱ: 인상, ㄴ: 인상, ㄷ: 매입

④ ㄱ: 인상, ㄴ: 인상, ㄷ: 매각

⑤ ㄱ: 인상, ㄴ: 인하, ㄷ: 매입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통화정책에서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이를 인상하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과 대출 공급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공개시장조작에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민간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리고, 따라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완화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인하'이며, 통화량을 줄이려면 '인상'해야 한다.
② X. 지급준비율 인하와 재할인율 인하는 모두 은행의 신용공급을 늘리는 완화정책이다. 또한 국공채 매입은 민간에 자금을 공급한다. 틀린 표현은 '인하·인하·매입'이며, 각각 '인상·인상·매각'이 되어야 한다.
③ X.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의 인상은 긴축 방향이지만,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린다. 틀린 표현은 '매입'이며, 통화량을 줄이려면 '매각'해야 한다.
④ O.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국공채 매각은 모두 은행의 대출·신용창출 또는 민간 유동성을 줄이므로 통화량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⑤ X. 지급준비율 인상은 긴축 방향이지만, 재할인율 인하와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리는 완화 방향이다. 틀린 표현은 '인하·매입'이며, 각각 '인상·매각'이 되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공채 거래의 상대방은 중앙은행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민간에 현금을 지급하여 통화량이 늘고, 매각하면 민간의 현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량 감소가 목표이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방향인지, 민간의 현금을 중앙은행이 흡수하는 방향인지를 확인한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은 인상, 공개시장 국공채는 매각이면 긴축이다.

암기 포인트

긴축은 '준비율↑·재할인율↑·국공채 매각'이다.

NoteBase